

부산 한솔희, 제3회 체육대회 개최

부산 제과기술인 동아리 한솔희가 6월 7일 사상시민운동장에서 제3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지회가 후원한 이날 체육대회에는 부산지역제과기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축구 게임을 갖는 등 친목과 우애를 다졌다.



부산 해운대지부, 자체 세미나 개최

부산광역시 해운대지부(지부장 양철석)가 지난 6월 16일 보수상사에서 회원 8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위생교육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지회 김중수지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전국지부중에서 최초로 단독세미나를 개최, 지역 기술발전에 공이 크다”고 전제하고 “기회에 업체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수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제과 공장장 4명을 특별 초빙한 이날 세미나는 서울과 부산에서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빵, 과자 9개 품목을 선보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해운대지부는 이번 세미나에 회원

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연 2회 이상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지회, 세미나 개최
매출증대 위한 제품 선보여**

대구지회(지회장 진영신)는 지난 6월 21일 세미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 성심당 공장장 신철수 씨를 강사로 초청한 이날 세미나에는 오렌지케이크, 시나몬케이크, 생강·아몬드 쿠키 등 업소경영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포항지부, 화과자 세미나 가저

포항지부(지부장 오종석)가 7월 7일 협회세미나실에서 대두식품 후원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앙금을 이용한 만주 등 화과자 10여 제품이 선보였으며 대두식품 개발과 김삼기 씨가 실연을 했다.

수원지부, 프리믹스 제품 세미나 개최

수원지부(지부장 이덕주)가 7월 6일 협회사무실에서 대한제분, 현일상회 협찬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스펀지케이크, 옥수수식빵, 머핀 등 프리믹스를 이용한 단과자빵과 튀김류를 선보였다.

안양지부, 자체 세미나실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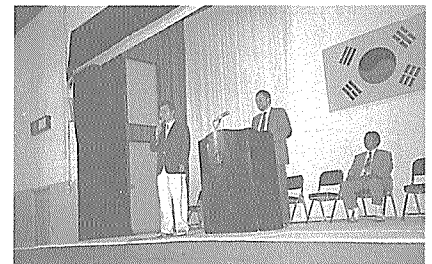
안양지부(지부장 이범진)는 지난 6월 24일 협회 사무실에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개관기념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현대학원 윤대권 원장, 박영선 부원장이 강사로 초빙돼 후르츠텔리, 마론롤 등 여름철 제품인 무스케이크류를 선보였다.

한편, 이번 세미나실 마련을 위해 제일

특수산업이 오븐, 믹서 등 제과관련 기계를 기증했다.

서부지부, 자매결연교 대상 강의 개최



서부지부(지부장 안승률)가 지난 6월 16일 고양종합고등학교에서 건국대 조남지교수와 독일하노버대학 월터 프리인터교수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가졌다. 지난 89년 자매결연을 맺은 고양종합고등학교 식품가공과 학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제과업의 전망을 비롯한 한국과 독일빵의 문화비교 등 1시간여 강의가 있었다. 또한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은 독일유학 방법과 독일 젊은이들의 진로 선택에 관해 질문시간을 갖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온양 지부 정기 총회 개최
정현봉 새 지부장 선출**

온양 지부는 지난 7월 11일 온양시 온천가든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지부장에 정현봉(독일제과)씨를, 부지부장에 김영준(둔포 뉴욕제과)씨, 남창덕(신라명과)씨를, 총무에 최조순(빵즈비)씨를 각각 선출했다.

노원지회, 창립총회 개최

노원지회가 7월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재수씨를 새지부장으로 선출했다. 행정개편으로 북부지회에서 분할된 노원지회는 지역 제과인의 권익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